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20. No. 4, 2009

사상체질에 따른 의사결정 및 학습 유형

신은주
군산간호대학

Decision Making Style and Learning Styl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Eun-Ju Shin
Kun-San College of Nursing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cision making style and learning styl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Methods :
The subjects were 213 nursing students of K college in Jeonbuk, and the period of data gathering was limited from 1 Sep. 2009 to 7 Sep. 2009. The instrument tools included QSCC Ⅱ, decision making style, and learning sty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PC programme.

Results :
1. Decision making style: Soeumin group had significantly high score in rational score compared with Soyangin(F=7.174 p=.001), and in dependent score compared with Taeumin and Soyangin (F=3.414, p=.035).
2. Learning style: Soyangin group had significantly high score in cooperation score compared with Taeumin(F=5.688 p=.004), and Taeumin group had significantly high score in emulous score compared with Soeumin and Soyangin (F=.148, p=.002).

Conclusions :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decision making style and learning sty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educational program needs to be developed considering Sasang constitution.

투고일 : 11/6 수정일 : 11/30 채택일 : 12/1
교신저자 : 신은주, 전북 군산시 개정동 413번지 군산간호대학
Tel : 063-450-3820, Fax : 063-450-3850, E-mail : ejs@kcn.ac.kr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Decision making style, Learning style

Ⅰ. 서 론

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알맞은 교육내용과 기회를 제공하여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킴으로써 개인으로서의 만족한 생활은 물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한다[1].

한편, 우리나라의 현 교육환경은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정보를 다수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수자 위주의 교과목 중심 교수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학습을 하여도 학습자마다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여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성취도 또한 다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격이 제각각 다르듯이 학생들의 의사결정 유형이나 학습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이에 학습자 개인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잠재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위해 인간의 개인차에 대한 탐구노력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성격 유형인 사상체질에 따르면 태양인(太陽人)·태음인(太陰人)·소양인(少陽人)·소음인(少陰人)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장부기능의 대소에 따라 오장육부(五臟六腑)의 허와 실, 얼굴의 생김새, 체격과 성격 등의 차이가 있고, 각 체질에 따라 생리기능과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폐비간신(肺脾肝腎)을 보사(補瀉)하고 성정(性情)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3].

의사결정 유형이란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4],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문제로부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사결정이 반복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5]에서는 대상자가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의 의사결정을 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함을 보고했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4]에서는 의사결정 유형과 학업 성적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는데, 성적이 상위일수록 합리적 유형 점수가 높고 성적이 하위일수록 직관적 유형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적 유형과 의존적 유형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학습 유형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 중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학습의 경향성으로, 학습자가 정보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서적 반응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 유형은 교수 자가 학습자에게 알맞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때 학습자의 학습 성향이 변화될 수 있고 학습 효과에도 영향

을 미치는데[6], 손 등[7]의 연구에서는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이 학습 유형 중 인지적 유형과 관련이 있었고, 이들 요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시사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는 학습 유형에 따라 학업 성취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상위집단의 학생들이 하위집단의 학생들보다 정의적 학습 유형(목표 숙달 지향, 목표 수행 지향)과 인지적 학습 유형(표층 처리, 심층 처리)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성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선호하는 학습 유형을 알게 하고, 자신의 스타일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뿐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습 상황에서 배운 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자의 사상 체질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과 학습 유형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개인의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지도에 유용하게 하며 교수 학습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체질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체질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체질 특성에 따른 학습 유형을 파악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상 체질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과 학습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의 K대학 간호학과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설문에 응할 수 있는 학생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설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한 후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으로 하였고,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9월 1일에서 9월 7일까지였다. 회수된 292부 가운데 체질 감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적절하게 응답한 79부를 제외하고 총 213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사상체질

김 등[10]에 의해 개발된 사상체질 분류검사지 QSCC Ⅱ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는 객관적인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컴퓨터용 프로그램으로써 신체적 요소 8 문항, 심성적 요소 80 문항, 체질병증과 체질소증에 관한 24 문항, 동기왜곡에 관한 9 문항으로 총 121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α=.72 ~ 81 인 비교적 정확하게 체질을 감별할 수 있는 도구로 현재 각 한방병원 사상의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다.

2) 의사결정 유형

고[11]가 한국의 현실과 문화에 알맞도록 번

역하고, 최[12]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는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내용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각각 10문항씩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3 이다.

3) 학습 유형

Grasha 등[13] 이 개발하고, 고[14]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일정한 학습방법의 경향성을 알아보는 도구이다. 내용은 학습양식을 독립적-의존적, 협동적-경쟁적, 참가적-회피적 학습양식으로 3개 차원, 6개 하위유형으로 분류하고 같은 차원에서 나누어지는 두 가지의 학습 유형들이 서로 대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9 이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질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체질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 및 학습 유형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Tukey 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20.94세이고, 여학생이 89.7%(191명)이며, 남학생은 10.3%(22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57.7%로 가장 많았고, 없다 16.4%, 천주교 14.1%, 원불교 7.1%, 불교 4.7% 순이었다. 간호학과 입학 동기는 본인의 뜻으로가 56.3%로 가장 많았고, 취업을 고려해서 22.5%, 보모님의 권유로 18.8%, 선생님의 권유로 2.4% 순이었다. 학교생활은 '적극적이다' 70.9%, '보통이다' 21.1%, '소극적이다' 8.0%로 나타났다(Table Ⅰ).

Table Ⅰ.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3)

Variable	Category	Mean ± SD	Frequency (%)
Age (year)		20.94 ± 3.06	
Gender	Female		22(10.3)
	Male		191(89.7)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123(57.7)
	Catholic christian		30(14.1)
	Buddhist		10 (4.7)
	Won buddhist		15 (7.1)
	None		35(16.4)
Motivation for applying to nursing	Voluntarily		120(56.3)
	Encouragement by parents		40(18.8)
	Encouragement by teachers		5 (2.4)
	Considered employment		48(22.5)
School life	Active		151(70.9)
	Average		45(21.1)
	Passive		17 (8.0)

2. 대상자의 체질 특성

대상자의 체질별 특성은 남학생의 경우 태음인 13.6%, 소음인 50.0%, 소양인 36.4% 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태음인 25.7%, 소음인 40.8%, 소양인 33.5%로 남학생 여학생 모두 소음인이 가장 많았다(Table Ⅱ).

Table Ⅱ. Constitution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3)

Gender	Taeeumin Frequency (%)	Soeumin Frequency (%)	Soyangin Frequency (%)
Male	3 (13.6)	11 (50.0)	8 (36.4)
Female	49 (25.7)	78 (40.8)	64 (33.5)

3. 체질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유형 점수

체질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 점수를 분석한 결과 합리적 유형 점수는 소음인이 30.66점으로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F=7.174, p=.001), 직관적 유형점수는 태음인이 27.53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의존적 유형 점수는 소음인이 26.07점으로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3.414, p=.035)(Table Ⅲ).

Table Ⅲ. Decision Making Styl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n=213)

Decision Making Style	Taeeumin (Mean ± SD)	Soeumin (Mean ± SD)	Soyangin (Mean ± SD)	F	p
Rational Score	28.28 ± 5.59	30.66 ± 5.24[a]	27.77 ± 4.61[b]	7.174	.001
Intuitive Score	27.53 ± 4.48	26.52 ± 5.14	27.41 ± 4.49	1.012	.365
Dependent Score	23.97 ± 5.70[b]	26.07 ± 5.54[a]	23.65 ± 5.01[b]	3.414	.035

a, b : same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test (p <.05)

4. 체질 특성에 따른 학습유형 점수

체질 특성에 따른 학습유형 점수를 분석한 결과 독립적 유형 점수는 소양인이 3.5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의존적 유형 점수는 소음인이 1.87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협력적 유형점수는 소양인이 5.88점으로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반면(F=5.688, p=.004), 경쟁적 점수는 태음인이 4.91점으로 소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148, p=.002). 참여적 유형 점수는 소음인이 가장 높은 반면, 회피적 유형 점수는 태음인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Ⅳ).

Table Ⅳ. Learning Styl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n=213)

Learning Style	Taeeumin (Mean ± SD)	Soeumin (Mean ± SD)	Soyangin (Mean ± SD)	F	p
Independent Score	3.43 ± .63	3.50 ± .60	3.55 ± .60	.611	.544
Dependent Score	1.85 ± .41	1.87 ± .46	1.80 ± .45	.469	.626
Cooperation Score	5.30 ± 1.03[b]	5.44 ± 1.05	5.88 ± 1.01[a]	5.688	.004
Emulous Score	4.91 ± .51[a]	4.44 ± 1.04[b]	4.43 ± .96[b]	.148	.002
Participation Score	6.86 ± 1.23	7.12 ± 1.29	6.95 ± 1.14	.848	.430
Evasive Score	3.50 ± .64	3.29 ± .86	3.38 ± .77	1.190	.306

a, b : same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test (p <.05)

Ⅳ. 고 찰

학교 교육은 교과 학습차원에서 볼 때 최대한 많은 수의 학생이 교수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15]. 많은 학생들이 교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습자 개개인의 독특한 의사결정 유형과 학습 유형을 파악하고, 학습자에게 알맞은 학습방법을 적용하게 될 때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상 체질에 따른 의사결정과 학습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체질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리적 유형 점수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한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조직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향이 있다[5]. 이에 소음인은 목표지향적인 성격으로 일처리의 계획과 조직화를 잘 하고 실천 능력이 뛰어나며 행동하기에 앞서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합리적 유형 점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16].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은 자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기 보다는 즉흥적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순간이 빠른 특징이 있다[5]. 이에 소양인은 일을 시작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일단 시작하고 보는 태도로 쉽게 일을 처리하며 행동이 빠르고 시원시원한 반면 태음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두려움이 있어 잘 추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성격이 느긋한 편인데, 본 연구결과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태음인이 높게 나타나 문헌고찰과는 차이가 있었다. 추후 대상자를 확장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의존적 유형 점수는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최[12]의 연구 결과 비슷하였다.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동적이며 순종적이어서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5]. 소음인은 일 처리에 있어 신중하고, 생각과 사고에 있어 논리적이긴 하나,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을 의식하고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 특징이 있어 의존적 유형 점수도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사상체질과 심리학적 유형간의 일정한 경향성을 알아보고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일관된 연구결과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박[17]의 연구에서 각 체질 간 성격 유형은 외향성과 내향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심[18]의 연구에서는 태양인은 직관, 소양인은 사고, 태음인은 감각, 소음인은 감정과 부분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합리적 유형이나 의존적 유형은 다른 연구와 일관성이 있으나 직관적 유형에서는 다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어,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 객관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체질 특성에 따른 학습유형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적 학습 유형은 혼자 힘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며 다른 학습자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줄 알며, 자신의 학습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1]. 본 연구 결과에서 유의한 차

이는 없으나 소양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소양인이 공부에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고 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게 있다면 주저 없이 지적하고 거침없이 말하는 학습특성을 가진 때문으로 생각된다[19].

반면 의존적 학습 유형은 지적호기심이 거의 없거나 교사가 요구하는 것만을 배우고자 하며 교사중심의 수업을 선호한다[1].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소음인이 가장 높은 것은, 소음인이 의욕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며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질문하는 일이 드물 정도로 소극적인 학습특성을 가진 때문으로 사료된다[19].

협력적 학습 유형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 그리고 창의성 등을 교환함으로써 배우기를 원하고 교사와 상호작용을 잘 한다[1]. 본 연구 결과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소양인은 의욕이 강하여 앞장서서 추진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서 공부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습 특성을 가진 때문으로 생각된다[19]. 반면 경쟁적 학습 유형은 다른 학습자보다 더 잘하려 하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다른 학습자들과 경쟁하며 강연회나 세미나 형식의 수업을 좋아한다[1]. 본 연구 결과 태음인이 소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태음인은 시험에서 한 두 문제를 틀리고도 시험을 망쳤다고 말하는 타입으로, 생각이 많고 욕심도 많으며 경쟁심이 강한 학습특성을 가진 때문으로 사료된다[19].

참여적 학습 유형은 수업과 관련된 활동에 가능한 많이 참여하고자 하며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 수업을 좋아한다[1]. 본 연구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소음인이 가장 높은 것은, 소음인이 소극적 성격은 있으나 들뜨지 않고 성실하여 노트정리도 잘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잘 순응하여 공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9].

반면 회피적 학습 유형은 교과학습의 수업내용에 별로 흥미가 없으며 교사나 동료와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한다[1].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태음인이 가장 높은 것은, 태음인의 단점 중 게으르며 몸을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 특성이 학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다[19].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독립적 유형·의존적 유형·참여적 유형·회피적 유형에 관해 더 많은 대상자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의사결정 유형에 대해 MBTI와의 관계[20]나 진로결정과의 관계[11]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습 유형에 대해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15]나 학습 동기와의 관계[8] 등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상체질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이나 학습 유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사상체질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과 학습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의 학생만을 대상자로 하여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체질 중 태양인 대상자가 없는 태음인·소음인·소양인 세 가지의 체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제한점이 있으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학습 지도 및 교수 학습법 개발에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상 체질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과 학습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09년 9월 1일에서 9월 7일에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 소재의 K대학 간호학과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설문에 응할 수 있는 213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 도구는 사상체질분류검사 Ⅱ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와 고[11]가 번역한 의사결정 유형 도구 및 Grasha 등[13]이 개발하고 고[14]가 수정 보완한 학습 유형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1.0을 이용하였고, Cronbach's 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을 위해 Tukey test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20.94세이고, 여학생이 89.7%이며, 남학생은 10.3%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57.7%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과 입학 동기는 본인의 뜻으로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생활은 '적극적이다' 70.9%, '보통이다' 21.1%, '소극적이다' 8.0%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체질별 특성은 남학생의 경우 태음인 13.6%, 소음인 50.0%, 소양인 36.4%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태음인 25.7%, 소음인 40.8%, 소양인 33.5%로 남학생 여학생 모두 소음인이 가장 많았다.

3. 체질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유형 점수를 분석한 결과 합리적 유형 점수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F=7.174, p=.001), 의존적 유형 점수는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F=3.414, p=.035), 직관적 유형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체질 특성에 따른 학습유형 점수를 분석한 결과 협력적 유형점수는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반면(F=5.688, p=.004), 경쟁적 점수는 태음인이 소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148, p=.002). 독립적 유형 점수와 의존적 유형 점수 및 참여적 유형 점수와 회피적 유형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 수가 적은 편이고, 체질 중 태양인 대상자가 없는 태음인·소음인·소양인 세 가지의 체질만으로 분류한 연구의 제한점은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사상체질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과 학습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학습 지도 및 교수 학습법 개발에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동진. 학업우수아와 저성취아의 사고양식과 학습양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 이유진. 대학생들의 학습전략, 학습스타일,

학습자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 송일병. 성인병과 사상체질 의학. 대한한의학회지. 1993;14(2):11-6.
4. 류명희. 부모의 의사결정유형과 자녀의 의사결정유형간의 상관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 안혜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6. 김태희. 초등학생의 학습유형에 따른 통합적 경험수업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7. 손병환, 박경자. 완벽 주의적 특성이 대학생의 고독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생활 탐구. 1999;12:63-81.
8. 문은식, 김충희.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 교육심리학회. 2003;17(2):271-88.
9. 김동률. 고등학생의 체질유형과 수학적 성향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0.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 검사지 (QSCCⅡ)의 표준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8(1):187-216.
11.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 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2. 최민기. 사상체질과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3. Grasha AF. & Reichmman RE. A rational approach to developing and assess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a student learning style scales instrument. Journal of Psychology. 1974;87:213-23.
14. 고동혜.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습 양식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5. 이승은. 중학교 학생의 사고유형, 학습양식, 과학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6. 박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 의 심리학적 유형과 사상체질 및 성격특성의 분석과 이의 비교연구. 심성연구. 2000; 15(2):87-177.
17. 박진배. MBTI 성격유형과 사상체질과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2003.
18. 심재평. 사상의학의 사상체질과 동서양의 체질 체형론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9. 김정호. 체질을 알면 우등생이 된다. 초판. 전주:신아출판사. 2004:61-6.
20. 김상호. 부모의 양육 태도와 중학생들의 MBTI 선호 유형과 진로 의사 결정 유형 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부록 1

설 문 지

1. 귀하의 나이는?

2.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3. 귀하의 종교는?
   1) 기독교　2) 천주교　3) 불교　4) 원불교　5) 없음

4. 간호학과 입학 동기는?
   1) 본인의 뜻으로　2) 부모님의 권유로　3) 선생님의 권유로　4) 취업을 고려해서

5. 학교생활은?
   1) 적극적이다　2) 보통이다　3) 소극적이다

부록 2

측정도구 1 : 의사결정 유형

4: 매우 그렇다. 3: 약간 그렇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번호	문항내용	4	3	2	1
1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2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				
3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결과까지 고려한다.				
4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				
5	중대한 의사결정문제가 예상될 때, 그것을 계획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6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살펴본다.				
7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한 계획을 세운다.				
8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올바른 의사결정임을 확신하고 싶기 때문이다.				
9	종종 내가 내린 각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일정한 목표를 향한 진보의 단계들로 본다.				
10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을 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답을 알고 싶다.				
11	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매우 독특하게 의사 결정을 한다.				
12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재빨리 결정을 내린다.				
13	의사결정을 할 때, 나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따른다.				
14	문제의 본질에 대해 찰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의해 결정을 한다.				
15	의사결정에 관해 실제로 생각하지 않지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16	의사결정을 할 때, 마음이 가장 끌리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				
17	의사결정을 할 때, 예감 또는 육감을 중요시한다.				
18	어떤 의사결정이 감정적으로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그 결정을 올바른 것으로 본다.				
19	"이것이다"라는 느낌에 의해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다.				
20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을 갖기보다,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21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친구들이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시한다.				
22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23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한다.				
24	친한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는 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25	의사결정을 못한 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26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27	인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의사결정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28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				
29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친구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30	대개의 경우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부록 3

측정도구 2 : 학습 유형

4: 매우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2: 아닌 편이다. 1: 거의 아니다.

번호	문항내용	4	3	2	1
1	예습과제를 미리 충분히 읽는다.				
2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본다.				
3	공부할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4	공부할 내용에 대해 일일이 말해주는 것을 싫어한다.				
5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것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다.				
6	수업시간에 다루어진 내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교과서 이외의 자료를 찾아 공부한다.				
7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다 옳다고 생각한다.				
8	공부할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9	학생들의 능력은 공부를 잘 하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10	공부할 내용을 해결하는데 다른 친구들의 의견이 도움이 된다.				
11	배워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다.				
12	과제를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13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	공부할 때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이 좋다.				
15	공부 시간에 각자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16	교실에서 공부할 내용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				
17	선생님과 학생 간에는 배움을 위한 서로 협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8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야 한다.				
19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라도 내 생각을 꼭 주장해야 한다.				
20	공부를 잘 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끼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1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2	시험보기 전에 다른 친구들과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23	질문에 대해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대답 하려고 한다.				
24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때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하려고 한다.				
25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 내용을 다 잘 하려고 한다.				
26	교실에서의 활동이 다 재미있다.				
27	열심히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다.				
28	과제가 주어지면 어느 것이든지 즉시 시작해서 끝낸다.				
29	다른 흥미 있는 일이 있어도 우선 숙제를 한다.				
30	학교 수업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31	수업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32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열심히 한다.				
33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				
34	학교에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35	수업시간 중에 공부이외의 것을 생각한다.				
36	공부시간에 나를 시키지 않는 선생님이 좋다.				
37	교실에서의 공부가 싫증난다.				
38	만약 공부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포기한다.				
39	공부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40	선생님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앉고 싶다.				